

2018년 1월 20일, 대정읍 일과1리 강여순 씨 댁, 이현정 조사.
강여순(여, 1930년생, 대정읍 일과1리)

- 줄거리: 여우는 낮에는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람과 친구로 어울렸다가, 밤이 되면 다시 여우로 돌아간다.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는 붉거나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다.

[조사자] 그러면 혹시 여우 얘기 그뜬 것도 들어나셨우과? 여우가 여자로 둔갑해그네 어 떻 홀렸다 뭐 이런 얘기덜…….

[제보자] 여우가게, 옛날에 말이지. 여우가 낮이는 사람이고 밤이는 여우가 뒤영 니빨도 그자 두 개, 시 개 돌아그네 허곡. 옷도 따른 거 헤연 무신 붉은 옷 그뜬 거 입곡. 그자 또 다니곡게. 아이민 헤양헌 옷을 입이나, 경 헤민 요 허엿주게 여우, 뎅겼젠헷주게.

[조사자] 거믄 여우는 여자로 벤신허는 게 주로마씨? 여자로 둔갑허여?

[제보자] 여자로도 허곡 남자로도 허곡. 여운 벤색 벤색 허여.

[조사자] 그믄은 여자로 변색해그네 어떻 헨 홀려 사름을?

[제보자] 홀리진 안 혀. 홀리진 아이고, 그 낮이 그뜬 때엔 사름광 막 친허영 찌 뎅겨 도 밤이는 오꽃 여우 뒤연.

[조사자] 소 간이나 말 뭐 내장 빼여 먹는덴 헌 얘기는 엇우과?

[제보자] 아니여.

[조사자] 게믄 여우랑 친구헌 사름은 어떻 헤여.

[제보자] 밤이는 갈라지주게 갈라령 도로. 그 사름 혼자만 어들로 나가그네 산천 그뜬데 강 여우로 벤색허연.

- 핵심어: 여우, 여자, 벤색(변신), 사람, 친구, 밤, 낮, 둔갑